

열정과 신념의 운동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일시: 2006년 6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세실레스토랑

진행: 박석(본지 주간, 상명대 중문과 교수,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장)

박 석 :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이신 박영숙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전남여고를 나오셨는데, 유년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과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 삼년터울의 삼녀삼남 중 둘째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 아홉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집안 어른들이 사는 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8월에 해방을 맞은 후 평양으로 귀향했다가 우리 가족은 월남하여 앞서 월남한 작은아버지가 계시는 전남 광주로, 여고를 졸업한 후 서울로, 그리고 6.25 사변 시에는 제주도로 전전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31년도에 발발한 만주사변 다음 해에 태어난 저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사변 등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난중에 태어나서 전쟁 시기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아버지는 연구의욕이 강한 엔지니어로서 태평양전쟁 중에 자동차 대체에너지 연구에 몰두하시다 얻은 병으로 서울에서 병 치료 중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생활력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숨겨졌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육남매를 길러야 하는 여성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교육하는 것에 치중한 생활철학으로 쉽게 터전을 훌훌 털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거나 다정다감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 측의 사람이 찾아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들 딸 하나씩을 양자로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머니는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들에게 물었고 어머니와 있겠다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주셨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아직도 생생한 한 가지는 해방이 되어 평양에 돌아와 정의여중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이 학교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인데, 1946년 삼일절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애국가를 불렀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비장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국민의례를 할 때 애국가를 끝까지 부르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서요.

박 석 : 1950년대 YWCA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6~70년대의 주요활동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숙 : YWCA의 회원이 된 것은 1951년 이화대학교에 입학하면서였습니다. 이화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이기도 하지만 총장이 YWCA 창설자이기도 한 때문이었는지 대학 YWCA 임원이 학생회의 임원을 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 1세대인 김활란, 고환경, 이태영

박사님 등을 가까이서 만난 게 제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어서 난민구호사업, 전쟁고아 돌보기, 방학에는 농촌계몽활동 등이 활발했습니다.

졸업 후 YWCA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대학생 YWCA 간사로 일을 할 때는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도 전성기였던 기독교학생운동에 열의를 다했고 지금도 그때 그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열정적인 시민운동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YWCA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차별에 대한 절박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성차별이 없었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겐 여자라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밥을 풀 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간식거리가 있을 때는 어른까지 포함한 가족들이 똑같이 나눠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딸 아들 구분 없이 공평하게 받았습시다. 성차별의 현실과 여성운동의 필요성은 YWCA에 가담하면서 눈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운동의 과제는 ‘축첩반대’ ‘가족법 개정’ ‘고용평등’ ‘육아의 사회적 책임’ ‘여성의 인간화’ 성매매 문제’ 등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였습니다. 여성운동의 내용도 단순한 여성지위향상운동에서 여성의 인간화, 더 나아가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주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녀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들과 여성 노동자, 구속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겪는 고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고문사 문제’ ‘성고문 문제’ ‘여성의 부당해고’ ‘TV 시청료 거부운동’ 등과 관련된 길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가 단순한 여성지위향상운동의 온실에서 벗어나서 험난한 가두시위에 가담하게 된 계기는 남편(민중신학자 고 안병무)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6년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남편이 투옥되면서 시련을 겪었고 그로 인해 폭넓은 시민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사회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에 의해 ‘사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의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서의 책무(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새삼 터득한 셈입니다.

박 석 : 1980년대에는 굼직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평민당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이야기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영숙 : 여성들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민중기반의 여성단체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동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가던 중 이들이 보다 기민하게 활동하기 위해 진취적인 여성단체들로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한데 힘입었다고 봅니다. 그 후 우리나라 여성계는 기존의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두 흐름의 여성운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탄압사태가 터지는 상황에서 여성단체연합은 쉴 새 없이 가두시위에 나서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필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군부독재정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성활동가들 사이에는 여성들이 정책결정권 밖에서 요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로써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는 생각을 피력하기 시작했을 무렵 정치권에서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평화민주당이 출범하면서 여성계에 부총재 1명을 포함한 7명의 인재추천의 요

청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평화민주당의 부총재로 영입된 것은 여성계의 비공식적인 합의로 그때 당시 여성단체 연합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제가 추천되어서였습니다. 가족 중에 정치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투옥 후유증으로 와병 중에 있는 남편을 돌보아야 했던 처지에서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총재로 영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마음의 준비 없이 정계에 입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상 정계에 들어가 보니 서로 독려하며 함께 한다는 생각을 중시하는 시민사회와는 달리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곳이 아니더군요. 어디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정치 초년생에게 그래도 몇몇 원로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정계에 들어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 총재 권한대행으로 일하기도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정 책을 중시한다는 평화민주당이 제13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해준 덕으로 5년간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동안의 여성운동과 7~80년대의 환경운동과 소외계층의 인권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얻은 경험이 뒷받침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을 처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어느 다국적 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와중에서 근로자들이 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덕으로 경찰서에 들어가 그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의 의정생활의 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관련, 소수자 인권관련, 민주화 문제 등이었고 법제정 활동으로는 환경업무부처의 위상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전개한 의정활동은 그런대로 해냈다고들 평가해주었지만 정당정치에는 뿌리내리지 못한 채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7년간의 정치활동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후에 복귀한 시민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떠난 후에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62세의 늦깎이로 지구환경정책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행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젊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내며 신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라 열심히 한 덕으로 케임브리지 클레어홀의 평생 펠로우가 될 수 있었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박 석 : 한국여성재단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우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으며, 현재 1천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영숙 : 한국여성재단이 창립된 것은 1999년 12월 6일입니다. 현재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다가올 새천년을 구상하면서 여성계의 중진, 원로들이 후진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4,000여개의 크고 작은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문제는 재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12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당시 영부인인 이희호여사를 명예추진위원장으로 그리고 각계 원로대표 58명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재단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 1천억 기금모금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우리

나라의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이 엄존하고 있어서 여성재단보다 뒤늦게 출범한 재단들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하지만 기부문화에서는 여성부재의 현상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재단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는 개별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성들이 함께 풀어간다는 것,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 기부시장에서 여성의 몫을 찾아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하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여성을 위한 기부가 구걸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1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나눔의 문화가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팀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돈을 낼 수 있는 측과 일의 방법을 아는 측의 합동작업으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박 석 : 언론을 통해 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부 릴레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박영숙 : 매년 5월 한 달 동안 100인의 이کم이들이 자신이 기부하고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주어서 31일간 줄이어 모금하는 한국여성재단의 기부행진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금의 특성은 자기가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는 기부하지만 남에게 권유하는 것은 꺼리고 있지요. 지난 4년 간 지속한 결과 1만 명 이상이 이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라고 하면 거액 또는 특별한 경우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에 기부릴레이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십시일반식의 기부형식입니다.

해마다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달리하고 있어서 기부자들의 보람도 커진다는 것도 특색입니다.

박 석 : 이사장님께서서는 '세계생명문화포럼'의 강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운동 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운동이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이 시도되고 있고, 나눔의 문화 확산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력 등을 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논리와 과학기술의 경향성, 그리고 소비지향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이미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일부 비판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박영숙 :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사회적 대혼란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파국으로 달음질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선각자들이 파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그것은 국가이익에 매달려야 하는 국제회의 또는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물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부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익추구에서 보다 자유로운 주장을 펼 수 있고 국내외적인 연대가 용이한 시민사회의 민간조직들의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패권 국가들의 전쟁욕구와 지구시민 개개인의 소비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억제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가 열쇠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떠안고 있는 위협요인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 추세에서 파생된 각 부문의 사회양극화현상에서 빚어진 갈등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군사기지 확장에 따른 반평화요인들, 삼보일배 또는 장기단식으로 항거해도 끄떡하지 않는 무한정 성장추구정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현상들, 제때 대비하지 못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개별기업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작은 실천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사회에 있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환으로서의 환경친화적 혹은 가족친화적 경영의 시도, 시민사회의 일자리 나누기,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의 문화 확산 등의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 등이 사회변화의 조짐이라 하겠습니다.

박 석 : 박영숙 이사장님은 최근 미래포럼 이사장과 희망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과 국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출산은 교육과 여성 문제, 고용 문제와 빈부 격차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요?

박영숙 : 세계인구증가추세가 지구환경문제의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구환경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해법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제앙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해법으로는 교육의 고비용, 육아책임,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미래포럼에서는 우선적으로 삶과 일의 조화를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모델과 육아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착수하였으며 희망포럼에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운동에 공감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들과 선각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공사례들이 생기면서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남녀가 적기에 결혼할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족을 가지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삶과 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박 석 : 선생님은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기타 필생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거나 미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박영숙 : 필생의 사업구상이라고 하니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무슨 새로운 구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신명나는 일을 계속 해야겠지요. 되돌아보면 저는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보람을 느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야 앞으로도 있겠지요.

실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오정 오륙도’의 조기정년바람이 불면서 평생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자원봉사활동도 나이 들면 접어야 하는 분위기에 한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20년의 수명이 늘어났고 앞으로의 추세는 더욱 빨라져서 90~100세를 사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노는 것도 젊었을 때 그 수단을 익혀두어야 하고 같이 할 사람들도 일찍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길어진 인생에 대한 준비도 해가면서 일하라고 하지요.

최근에 만난 고(故) 피터 드러커 교수의 부인인 도리스 드러커 여사는 94세인데도 혼자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세 번씩 테니스를 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화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104세의 동문을 만났는데 이 분은 유관순 열사보다 한 살 후배로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다고 하고 지금도 3.1운동 관련기관에서 활동을 하실 만큼 건장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이란 여성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평등세상이 되는 것이고,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산과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 석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 우리 사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분열화가 문제가 아닐까요. 자기편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여기는 풍조가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서 상호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에 집착해서 타협 또는 조정이 어려운 현실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7~80년대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사회의 공신력이 있는 원로집단이 있어서 갈등해소의 조정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원로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그 기능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 희망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석 : 열정적이고 진지한 선생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